

유성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대법원도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산재로 인정!

대법원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조합원의 정신질환 산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조합원들의 산재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이로서 유성기업의 8년간 노조파괴가 현장 조합원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법적으로도 완벽히 입증됐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노조활동 중 당한 감시 등으로 생긴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유성기업이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얼마나 우리 조합원들을 힘들게 했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투쟁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유성지회는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을 유성기업 아산공장으로 옮겼다. 투쟁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 유성지회의 투쟁은 여전하다. 전면파업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회는 현장에서는 파업 투쟁을 벌이고, 밖에서는 유시영 회장의 배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안팎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보수언론과 정권의 사실 왜곡, 노조 비방으로 얼룩졌던 상황도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자극적으로 폭력상황을 연

일 터뜨리던 기사는 수그러들고 이제는 유성기업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8년간의 노조파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수언론을 통해 왜곡, 과장, 허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겨울이 와도 투쟁은 계속된다!

가을에 시작한 투쟁이 겨울을 맞고 있다. 계절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었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유성 투쟁을 향한 연대는 더 따뜻해지고 있다. 유성지회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사수’는 전국에서 성황리에 상영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사회가 유성투쟁을 얼마나 관심있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두 달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연대에 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느끼며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투쟁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연대를 다시 한 번 조직하자.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의 투쟁은 연대의 힘으로 더 강해진다.